

2020년도 수원대학교 3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출마소견서

수원대학교 3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여울 선거운동본부
정 총학생회장 후보자 문영찬

안녕하십니까, 수원대학교 학우 여러분! 36대 총학생회 선거 '여울' 선거운동본부의 정 후보, 문영찬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회가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선거시행세칙은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지만 학부 및 학과에 대한 선거세칙이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선거세칙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인 선거를 진행하면 학생들은 의욕이 없고 그로 인해 학생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체계적인 선거세칙을 통해 모든 학생회가 정당하게 선출되어 학생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년 소통에 관한 공약과 노력이 있었지만 이는 늘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체적인 새로운 체계를 정립하여 소통이 복제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학생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목소리를 대신하여 전달하겠습니다.

2018년 감사위원회가 설립되고, 2019년 정식으로 운영되면서 기존보다 투명하고 독립하게 학생회비가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학생회 그리고 학우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접근성의 부족에서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학우 여러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강의(평가를) 공개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강의 선택의 도움을 주고, 강의12시이라는 부담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자 일반학생들이 수업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막아 교육환경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학생복지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숙사와 셔틀버스 등 학우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내 시설물이 낙후되어 학생들은 불편함을 물론, 안전사고와 치안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수, 개선하여 학생들이 느꼈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모두가 소통한다면 우리의 바램을 이루는 것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책임감있게 행동하여 학생들의 앞에 서서 모든 학우가 바라는 방향으로 함께 흘러가겠습니다.

수원대학교 3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년도 수원대학교 3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출마소견서

수원대학교 3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여울 선거운동본부
부 총학생회장 후보자 황정연

안녕하십니까, 수원대학교 학우 여러분. 36대 총학생회 선거 '여울' 선거운동본부의 부 후보, 황정연입니다.

지난 1년간 연(連) 공대대학 부 학생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여러 사업들과 행사를 진행하면서 꾸준히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장에서 느낀 것은 많은 학우들이 학생회에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생회에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학생회가 학우들에게 충분히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학우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학우들의 일상에 동감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원대학교에는 13,000여 명 학우들의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학우들의 한 마디 한 마디를 듣고, 먼저 다가와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줍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더 편하게 통학하고, 하고 싶은 활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불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우들의 권리를 찾아 나가겠습니다. 학우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민감하게 다가갑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학우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것을 넘어, 학생회가 학우들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학생회 대표 몇 명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을 때 우리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올해 저는 무더져가는 학생사에서 빛을 보겠습니다. '금강 휴게소 브레이크 사건'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이 담긴 대자보나 포스터를 보여 아직 수원대학교 학생사회는 무더져서 양양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회에 대한 믿음은 무너졌다고 느낍니다. 수원대학교가, 수원대학교 학생이 풍요로워야 학우들은 상처받은 수발에 입습니다. '브레이크 사건'이라는 괴담이 학우들을 뒤흔들지 못한 걸을 경이로만 봅니다. 이런 사태를 원만히 해결해줄 거라고 믿었던 총학생회는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총학생회의 성숙한 입장표명과 사과문으로 학우들의 믿음이 무너진 것은 물론, 학우들의 지속적인 피드백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답변, 이러한 아픔을 대차로 총학생회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다시 떠났던 학교로 안도드립니다. '브레이크 사건'으로 학우들에게 안겨왔던 상처와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겠습니다. 먼저 다가와 학우들을 직접 만나고, 여가분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해 민감하게 다가와 해결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학생회, 든든한 학생회, 치장 할 수 있는 학생회, 그런 변화하는 학교, 그 과정을 여가분과 함께 해겠습니다.

수원대학교 3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